

소설 〈혼불〉에 나타난 통과 의례와 복식 분석(I)

柳志憲·韓明淑*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nalysis of The Rite of Passage and Costume in Novel, HON-BUL

Ji-Hun Yu and Myung-Sook Han*

Dept. of Home Economics, Instructor of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Professor of Sang-Myu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1. 출생의례
I. 서론	2. 혼인의례
II. 이론적 배경	3. 죽음과 사후의례
1. 통과 의례의 개념	IV. 결론
2. 소설의 화용론적 분석 방법론	참고문헌
III. 텍스트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Rite of Passage' from a Korean novel, "HON-BUL", and to analysis intrinsic meanings and function of the symbols, their personal meanings and social meanings from it.

A pragmatcal method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

The meaning of the Rite of Passage and the Costumes had mainly incantatory characters: son-wish, wealth, amicable relations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long life, and perpetual thought.

But the amount of grasping of meaning was thought to be depended on the reading ability of readers.

Since the Wedding Ceremony and the Funeral Ceremony were described a lot of times in the novel, it was known that they were regarded as very important Rite of Passage in the whole life.

The TEXT which were cited from the novel showed that the Rite of Passage was traditionally described as the Birth Ceremony, the Wedding Ceremony (includes the Puberty Ceremony), and the Funeral Ceremony.

The analysis of meaning in a novel had an important roll to understand CULTURE, SOCIAL LIFE, and TIMES in a written novel. Therefore a novel is very valuable to analyze them as the DISCOURSE and the TEXT.

I. 서론

본 연구는, 소설<혼불>에 나타난 우리의 전통 의례 중 통과의례를 발췌하여 각 의례에 나타난 상징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분석함과 동시에 텍스트에 묘사된 의례복식을 분석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알릴 뿐 아니라 소설이 민족의 주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담론¹⁾으로서의 연구 가치가 있음을 제시함에 그 목표가 있다.

연구 범위로는 한 시대의 삶과 민속의 기록인 동시에 의례의 체험을 독자에게 전해주는 방대한 자료 수집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시간적 계기에 따른 서술이라는 점에서 통과의례의 각 단계가 뚜렷하게 부각된 최명희의 장편소설 <혼불> I, II, III, IV권을 텍스트로 한다.

연구 내용으로는, 통과의례를 시간적 계기로 분류하여 출생의례(산전의례, 출산의례, 산후의례), 관례, 혼인의례(의혼의례, 대례, 후례), 죽음과 사후의례(상례의례, 제례의례)로 구분하여 각 의례의 형식 및 절차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 텍스트 분석과 의례복식의 종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자료로는 <혼불>로부터 발췌한 여러 문장(자료 1-16) 중 대표적인 것 일부만을 본 연구에 제시하고, 이들 자료를 화용론에 의거하여 의미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외의 자료는 차후 연구에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과의례의 개념

통과의례라는 용어는 불어의 Ceremonie Pa-

ssage와 영어 Rite of passage의 직역이며, Arnold van Gennep (1908, Les rites de Passage)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인간의 생활은 비슷한 끝과 시작의 연속적 단계-출생, 아동기, 사회적 사춘기, 약혼, 결혼, 임신, 아버지되기, 상층 계층으로의 이동, 종교단체에의 입회, 직업적 전문화, 죽음-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하나 하나의 사건에서 의식이 행해지며 이전 의식의 근본 목적은 개인이 어떤 명백한 지위에서 또다른 명백한 지위로의 통과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는 또 천체의 변화, 즉 달의 변화(보름 달에 관련된 의식), 계절의 변화(춘분, 하지, 추분, 동지에 관련된 의식), 해의 변화(설날) 등과 관련된 의례도 인간의 통과의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

우리 나라의 순수 통과의례는 출생의례, 관례, 혼례, 회갑연, 상례 등이며 제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四禮인 관·혼·상·제에는 출생의례와 회갑의례가 제외되고 제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통과의례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른 후까지 거쳐야 하는 개인적, 사회적인 변화를 여러 의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민족의 삶의 바탕이 되는 민속 문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과의례는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약속된 방식이므로 각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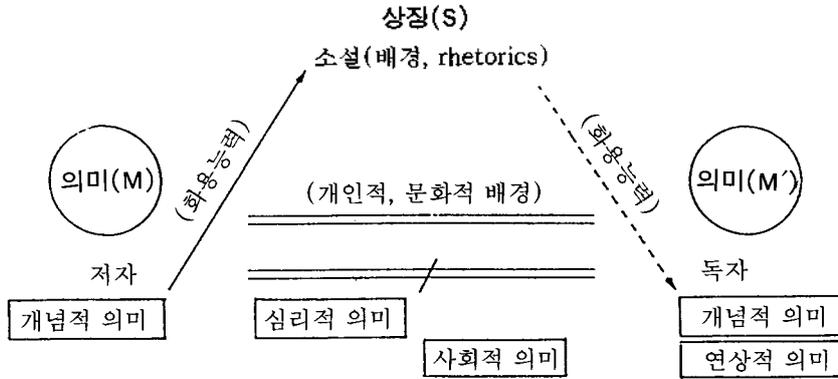
2. 소설의 화용론적 분석 방법론

C. W Morris는 화용론을 기호들과 그 사용자 또는 해석자들 간의 관계에 관한 학문³⁾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화용론적 분석이란 연행

1) 여기서의 담론이란 단지 쓰고 말한 언어의 더미를 가리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방식과 과정을 말한다.

2) Anold van Gennep(전경수 역), 1992, *The Rite of Passage*, pp. 27-30.

3) C. Morris, 'Foundations of the theory of signs', in Neurath, Carnap and Morris, 1938: 77-138, Reprinted in Morris 1971. ed. Dan Sperber & Deidre Wilson, *Relevance :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asil Blackwell, 1986, pp. 12-13.



<그림 1> 소설 텍스트의 화용론적 의미 분석틀

자와 연행관객 사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설 속에 나타난 각 문장의 의미표상에는 발화 시간과 장소, 화자의 신원, 화자의 의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텍스트를 분석할 경우 이 모든 화용론적 요소(사람, 시간, 공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독자가 그들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의미해석을 내리기 때문이다. 물론 한 문장의 의미표상에는 여러 독자들에게 공유되는 일종의 공통적 의미핵(core of meaning)이 있다. 그러나 독자에 따라선 공통적 의미핵 조차 이해 못하는 독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이상 훨씬 많은 양의 추론적 의미까지 가능한 독자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소설 텍스트의 화용론적 의미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1) 개념적 의미는 소설에서 저자가 독자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로서 보편적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2) 심리적 의미는 소설에 나타난 배경, 등장인물의 대화, 복식묘사 등 저자의 화용능력, 즉 Rhetorics에 따라 독자가 읽어내는 심리적 상황으로서 성격, 가치관, 태도, 취향, 기분, 고정관념 등이 포함된다. 3) 사회적 의미는 문체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과 층위를 인식함으로써 해석 가능한 것으로 등장인물의 사회적 환경, 즉 지역, 신분, 시대, 역할 등을 포함한다. 4) 연상적 의미는 어떤 문장을 읽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주관적 의미의 차원이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른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의적 차원이다. 즉 독자의 화용능력에 의존된다.

Ⅲ. 텍스트 분석

<혼불>에 묘사된 통과의례를 시간적 계기로 분류하여 크게 출생의례, 혼인의례, 죽음과 사후의례로 구분하였으며, 발췌한 여러 자료 중 일부를 다음에서 다루고 그외의 자료는 차후 연구에 제시하고자 한다.

1. 출생의례

(1) 청암부인은 들상 앞에 앉은 손자 강모에게 축수하며....

검은 윤이 반드럽게 어른 상 위에는 어린 손자의 앞날을 점쳐 보는 증표들이 정성스럽게 줄을 맞추어 놓여 있었다. 맨 뒷줄에는 ② 떡과 버루, 책 그 옆에 청실 홍실이 나란하고 가운데 줄에는 붓이며 돈, 그리고 활과 무명필이 소담하게 혹은 날렵하게 놓였는데, 아기의 손이 닿기 좋은 옆 줄에는 과일, 국수, 쌀, 떡 등의 음식이 탐스러웠다.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앞날들은 하나같이 복스러운 것이었다. 쌀에는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고, 쌀로 만든 무지개 떡과 편이며, 송편, 경단이 모두 곡식들로 여는 것 한가지라도 소중한 것 없지마는, 그 중에서도 가

장 보배로운 곡류라면 역시 쌀이 아닌가. 쌀은 곧 재물이요, 쌀은 곧 목숨이었다. 그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것은 돈이며, 쌀을 한 움큼집으나 돈을 집으나, 아기가 장차 부자가 되리라는 예언은 별차이가 없는 일이었다.

국수 그릇에 손을 대면 무병 장수할 것이요, 대추든지 사과든지 감이든지, 과일을 집어 올리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또한 청실 홍실은 길고도 긴 수명을 여한없이 누리라고 타래를 틀고 있다. ㉞ 청실 홍실을 구하기 어려운 집에서는 쉽게 무명실을 놓기도 하지만, 강모의 앞에는 푸른 실, 붉은 실이 요요하였다.

㉟ 강련이 때에는 활 대신에 자(尺)를 놓아 婦德을 빌었다.

여자의 할 일로는 침선이 으뜸이었던 때문이다.

㊱ 청암부인은 속으로, 저것이 실타래를 맨 먼저 집었으니 오래 살리라 생각하며 흐뭇하게 여기었다.

이기채는 이기채대로... 쌀대접을 부둥켜 안으려고 시늉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재물은 모으려는가 싶구마는... 울촌댁은 또 달라서, 대추를 입으로 가져가던 강모의 이쁜 짓만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떠올려 보는 것이었다.

(혼불 2:148-150)

자료 (1)은 산후의례에 속하며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후에 맞이하는 산일로서 아기가 돌상으로 부터 무엇을 잡는가에 따라 아기의 장례를 점쳐 보는 우리 고유의 의례이다. ㉞에서 실과 국수는 장수를, 활은 남자의 용맹을, 맥·벼루·붓·책은 학식을, 돈과 쌀은 부를, 과일은 자손번창의 의미를 나타낸다. ㉞로부터 가문의 지위를 알 수 있으며 ㉟는 돌잡이 주인공이 딸일 경우로써 이 시대 여성의 바느질 솜씨가 얼마나 중요시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㊱로부터는 祖母, 父, 母가 자손에게 바라는 마음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령인 할머니는 장수를, 아버지는 부(畜)를, 어머니는 자손번창을 제

일로 여기는 연령별, 성별에 따른 심리묘사가 잘 나타나 있다. 위의 자료에서는 돌복에 관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위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출생의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전통 출생의례 중 출산의례는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산전의례·산후의례로부터 한국인의 아들을 바라는 심리상태와 그 당시 만연하고 있는 남존여비사상, 가문의 차이와 유교사상 등 여러 사회상을 알 수 있다.

2. 혼인의례

(2) 신부는 팔을 높이 올려 한삼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다홍 비단 바탕에 ㉡ 돌결이 노닐고 바위가 우뚝하며, 그 바위 틈에서 가웃 고개를 내민 불로초, 그리고 그 위를 어미 봉과 새끼 봉들이 어우러져 나는데 연꽃, 모란꽃이 혹은 수줍게 혹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는 신부의 활옷은, 그 소매부리가 청, 홍, 황으로 끝둥이 달려 있어서 보는 이를 휘황하게 하였다.

㉢ 사모를 쓰고, 자색단령을 입은 신랑은 소년이였다.

신부는 다홍치마를 동산처럼 부풀리며 재배하고 일어선다. 한삼에 가리워졌던 얼굴이 드러나자, 흰 이마의 한가운데 끈지의 선명한 붉은 빛이 매화잠의 푸른 청옥잠두와 그 빛깔이 부딪치면서 ㉣ 그녀의 얼굴을 차갑고 단단하게 비쳐 주었다.

오색 찬란한 활옷과 화관으로 하여 더욱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 화관에 장식된 청강석 나비가 하르르 하르르 떨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

진주, 산호, 비취, 청옥, 백옥, 밀화의 구슬들은 일렁거리는 촛불빛을 받아 오색의 빛을 찬연하게 뽐낸다. 금방이라도 좌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질 것처럼 소담한 구슬

무더기가 꽃밭이라도 되는가, 실낱같이 가
날픈 가지 끝에서 ㉔ 청강석 나비가 날개
를 하염없이 떨고 있다.

큰 비너를 감으며 양 어깨 위로 드리워져
가슴으로 흘러내린 고운 검자주 비단 앞댕
기도, ㉕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다.

눈이 부시게 찬연한 오색 구슬로 덮인 화
관이며, 다홍의 활옷, 그 활옷에 수 놓여진
길상의 문양들이 커다란 소매의 푸르고 붉
고 노란 색동과 더불어 ㉖ 오직 마음을 어
지럽게 할 뿐, 곱다든지 어여쁘다는 생각
은 들지 않았다.

신부의 큰 댕기는 참으로 장엄하도록 찬란
하였다.

뒷등을 덮으며 방바닥까지 기다랗게 늘어
뜨려진 검자주빛 비단 댕기에는, 색색을
맞춘 비단실로 꽃송이 모양을 엮어 꾸미고
있고, 자갈한 칠보꽃이 한바탕 화려하게
가장자리를 장식하였는데 석용황과 옥관,
밀화 그리고 錦貝의 매미 다섯 마리가 앙
징스럽게도 두 갈래진 댕기의 가운데를 맞
물고 있었다.

“부우재에배에(婦又再拜)”

신부가 다시 두 번 절을 하자 신랑은 답으
로 일배를 한다.

“시이자아가악치임주우(侍者各침酒)”

㉗ 신랑 상에는 밥이 피어져 있고, 신부 상
에는 대추가 소복하다.

가운데 놓인 대례상의 양쪽에서는 불꽃을
너울거리며 ㉘ 한 쌍의 촛불이 타오르고,
그 옆에, ㉙ 술가지와 대나무 가지들은 목
에 청실 홍실을 감은 백자 화병에 꽃혀 서
서, 바람소리라도 일으킬 것처럼 서슬이
푸르고 상심하다.

모처럼 호강을 하느라고 ㉚ 붉은 보에 싸
인 채 고개만을 내민 암탉과 푸른 보에 싸
인 장닭은...

(혼불 1:15, 17, 18, 21, 23, 24, 28)

자료 (2)는 대례중 교배례이다. 여기서 신부의

예복 형식이 한삼, 활옷, 다홍치마, 매화잠, 푸른
청옥잠두, 화관, 큰 비너, 검자주 비단 앞댕기, 큰
댕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신랑의 예복은
사모와 자색 단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랑, 신부의 예복 종류 외에 ㉔
의 물, 바위, 불로초, 봉, 연꽃, 모란꽃, 매미 등으
로부터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알 수 있다⁴⁾. ㉕로
부터는 시대적으로 남성의 무혼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㉖-㉗에서는 신부의 긴장된 심
리상태를 알 수 있다. ㉘의 밤과 대추는 자손번창
을 의미하며, ㉙의 촛불은 광명을 상징하며, ㉙의
술가지와 대나무가지는 번치 않는 절개로 백년해
로를 의미한다. ㉚의 암탉과 장닭은 각각 신부,
신랑을 상징하며, 이들은 다산을 의미한다.

위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혼인의례 자료를 분석
하였다. 위의 자료에 나타난 혼인의례로는 의혼
의례로서 납채/납폐가 나타났으며, 대례로서는
전안례/교배례/함근례/함궁례가 나타났고, 후
례로서 우귀(신행)/폐백(현구고례)/관례(계례)
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 대부분은 전통 혼인의례
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례는 전통의례에서는 혼인 전에 이루어
지거나 의혼의례에 속하고 있으나 본 텍스트에서
는 후례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 다르며 어른에게
절할 때는 원삼차림으로, 동향에게는 당의차림,
사당 폐백시는 천담복 등을 착용한 것이 전통계
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혼인의례의 각
단계로부터 주를 이루는 의미는 二性之合, 부부
금슬, 조혼풍조, 혼례복 일습, 득다남 사상이었
다.

3. 죽음과 사후의례

(3) 굴건제복의 이기체는 오동나무 상장을 짚
은 채 곡을 한다. 효건을 쓴 위에 굴건을
쓰고 거친 삼베로 ㉓ 재취복을 입은 그늘
삼대를 발라낸 피삼을 흰 새끼로 동아줄같
이 끈 삼노로 수질을 만들어 머리에 두르
고 요질을 만들어 허리에 두른 채, 다리에
는 삼베 행전을 치고, 흰 무명을 신총에 감
은 짚신을 꺼칠게 신고 있다. 앞으로 쏟아

4) 유지현외 2인,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을 시론 참조.

지는 그의 몸을 받치는 것은 오직 한자루

⑥ 오동나무 지팡이 삭장이다.

⑦ 옷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저고리 대수 장군의 긴허리 아래로 좌우에 달린 세폭의 삼배 자락이 뒤에 드리운 여섯 폭 자락을 때리고 슬픔을 달래는 데 등을 덮은 부판은 바람에 뒤집히며, 엷은 비애를 때린다.

(혼불 3:82)

자료 (3)는 상례 중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성복·발인에 속하는 예문으로서 상복에는 五服이 있으며, 복은·혈육의 원·근에 따라 종류와 착용기간이 달랐다. 위의 자료에 나타난 이기채의 성복 일습은 효건, 굴건, 재취복, 수질, 요질, 삼배 행전, 짚신, 오동나무 지팡이 삭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④의 재취복으로부터 母喪임을 알 수 있으나 이기채가 양자임을 감안해 볼 때 3년이 아니라 장기 1년이 될 것이다. ⑥의 오동나무 지팡이 삭장으로서 또한 母喪임을 알 수 있다. ⑦는 여자의 상복 구성형식으로서 옷깃이 없으며 앞, 뒤로 삼배자락을 드리운 것이 산자와의 분리를 의미한다.

(4) 이제 소렴을 마치고 대렴을 한 뒤에, 입관까지 하면, 이기채는 거친 베옷에 오동나무 지팡이를 보고 성복을 할 것이다. ... 청암부인을 위해서는 모상이니 재취 삼년을 입겠지만 남자로서 남에게 양자를 산 사람이나 여자로서 남의 문중으로 시집을 간 사람은 그 생가 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을 한등급씩 낮추어 입는 법이라 생모 이울떡을 위해서 장기 일 년만을 입을 것이다. ⑧ 최는 상복의 앞가슴에 달린 배 조각인데 부모를 잃은 효자가 비애를 억누르는 뜻이 있는 것으로 눈물받이라고도 하며, ⑨ 부판은 뒤에 붙이는 배 조각으로 비애를 등에 짊어진 것을 나타내는 데,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극추 생마포로 베옷을 지어, 가위질한 그대로 아래 단을 꿰매지 않은 옷 참취의 상복을 삼 년간 입는다. 극추 생마포는 삼승베로 더 말할 나위 없이 거칠고

발이 굵은 삼베다. 그리고, 상복을 참이라 이름지은 것인데, 어머니의 죽음에는 차등 추생포로 옷을 지어 아래 단을 꿰매어 입는 상복, 참취 삼년을 입는다.

그 다음 복은 장기(杖藜)로서, 지팡이를 짚고 일 년간 재취를 입는 것인데, 적손이 그 아버지는 죽고 조부가 생존해 있을 때 조모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다음은 부장기(不杖藜)이다. 상복은 입지만 지팡이를 짚지 않고 일년 동안 입는 것으로,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그리고 맏아들 아닌 못아들의 죽음에 입는다. 맏아들 맏아들 잃었을 때는 그 복이 다르다.

대공복(大功服)은 대공친(大功親)인 종형제와 종자매들을 위해서 입는 상복으로, 굵은 베로 지어 아홉 달 동안 입고, 소공복(小功服)은 소공친인 종조부, 종조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 형제들을 위해서 다섯 달 동안 입는다.

끝으로 시마(總麻)는, 종중조부, 종중조모, 종조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형제의 증손과, 못 현손들을 위하여 석달 동안 입는 것이다. 그래서, 참취, 재취, 대공, 소공, 시마를 일러 오복이라 하고, 장기, 부장기는 상복을 입되 지팡이를 짚는가 안 짚는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다른 상복은 모두 복식과 기간이 하나인데, 재취만은 관계에 따라 삼년, 장기, 부장기, 오월, 삼월, 다섯 종류가 있는 셈이다.

요사한 사람을 위해서는 순서에서 한 등급을 낮추어 입고,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를 입으며, 서자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삼 년 복을 입지 못한다. 또, 첩도 남편의 장자나 못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애롱히 여기고 복을 입는다.

(혼불 3:76-77)

자료 (4)는 혈육의 원·근에 따른 성복의 종류 및 형식이다. 즉, 모상일 때는 재취 3년이나 양자나 시집간 딸일 경우는 한 등급 낮은 장기 일년으로 하며, 부상일 경우는 참취 3년, 조모상일 때는

제최 장기 1년,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못아들의 상일 때는 부장기 1년, 종형제, 종자매의 상일 때는 대공복 9달, 종조부, 종조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 형제의 상일 때는 소공복 5달, 종중조부, 종중조모, 종조의 형제나 자매, 형제의 증손과 못 현손의 상일 때는 시마 3달 그리고 이밖에 요사했을 경우는 한 등급 낮추며,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를 입으며, 서자는 생모의 상일지라도 3년 복을 입지 못하는 등 복제의 엄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㉔의 최와 ㉕의 부판으로부터 비애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텍스트에 나타난 죽음과 사후의례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의 자료에는 초종(발상과 초혼), 습염, 성복, 치장만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그외의 자료는 차후 연구편에 제시하기로 한다.

텍스트에 나타난 통과의례 및 복식을 정리하면

<표 1> 텍스트에 나타난 통과의례 및 복식

텍스트자료(번호)	의미분석				의례복식의 종류
	개념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	내포적 의미·연상적 의미	
자료 (1)	산전 의례	치성 기자	㉔ 잉태 소원	㉕ 음양사상 (홀수:陽)	
자료 (2)	출생 의례	산후 의례	㉖ 가문의 지위	㉔ 쌀, 돈:富 국수:무병장수 과일:자손번창 정홍명주실:신랑, 신부의 수명장수 ㉕ 자:여성, 針才	
자료 (3)	의혼 의례	납채	㉔ 전라도 군산지방	㉕ 이성지 합 앞날의 순조로움	
자료 (4)	혼인 의례	대례	전안례	㉔ 붉은색:벽사 ㉕ 왼쪽:양과생 ㉖ 북:생기가 시작되는 곳 ㉗ 한평생 해로와 정결	안부복(갓주립, 흑단령)
자료(5)		교배례	㉖ 남성의 초혼	㉘-㉙ 신부의 긴장감 ㉚ 청, 홍, 황: 음양오행사상 불:탄생, 여성 원리	신부 혼례복: 한삼, 활옷, 매화잠, 화관, 큰 바느,

<표 1>과 같다.

이상은 소설을 텍스트로 분석할 경우 가능한 의미분석이다. 여기에 나타난 개념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는 전통 통과의례에 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사회적 의미와 심리적 의미 그 외의 연상적 의미는 소설과 같은 연행 텍스트일 경우만이 그 분석이 가능하며 연행 관객(독자)의 화용능력에 따라 의미분석의 양은 달라진다.

<표 2>는 전통 통과의례와 텍스트에 나타난 통과의례의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텍스트 <혼불>은 그 형식 및 절차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통 통과의례에 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소설의 분석은 한 문화, 사회,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자료(번호)	의미분석				의례복식의 종류		
	개념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	내포적 의미·연상적 의미			
자료 (5)	혼 인 의 례	교배례	㉑ 남성의 조혼	㉑-㉒ 신부의 긴장감	바위:영속, 안정 블로초:영생 연꽃:모든 존재의 근원 모란꽃:남성 솔가지:절개 대나무:백년해로 암담:신부 장담:신랑	검자주 비단 앞댕기 신랑 혼례복: 사모, 자색 단령	
자료 (6)			합근례			㉑ 이성지함 ㉑ 술방울 홀립:부도덕 실이 얽힘:순조롭지 못한 삶의 예시	
자료 (7)						㉑ 모시속치마:모시처럼 시원한 인생 12폭:1년 (12달)	下衣:다리속곳, 속속곳, 단속곳, 고쟁이, 너른바지, 대습치마, 무자기, 다홍치마 上衣:속저고리, 노랑삼희장저고리, 빨옷, 대대
자료 (8)		합궁례		어색함 긴장감		신부의 혼례복 벗기는 순서: 화관/큰댕기/ 앞댕기/대대/ 저고리 옷고름/ 걸버선	
자료 (9)		후례	우귀	㉑ 신랑의 신분(학생) ㉑ 사투리(지역성, 신분)		㉑ 과부가 되는 것을 막음	신랑복:학생복 신부복:노랑저고리, 빨경치마
자료(10)		후례	현구고례	㉑ 양반, 아들 남편의 생존		㉑ 다남 기원 ㉑ 평탄한 고부관계를 바람	페백시 시어머니의 복식: 연두저고리, 자주색 회장, 남색치마, 신부복: 원삼
자료(11)		관례		성인이 됨. 어른: 원삼			관례복식: 연두 걸마기, 다홍겹치마,

텍스트자료(번호)	의미분석				의례복식의 종류	
	개념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	내포적 의미·연상적 의미		
자료 (11)	혼인 의례 관계	동향:당의 사당:옥색 저고리의 천단복			열두폭 대무지기, 여덟폭 곁종무지 기, 여섯폭 연봉무 지기, 모시 분홍속 적삼, 노랑속저고 리, 저고리 삼작, 당의, 원삼	
자료 (12)	죽음과 사후의 례 상례	초종	㉓ 초상을 외부에 알림.	㉔ 死者의 희생을 바람.	㉕ 왼손:陽과 생을 의미	비녀, 흰적삼(死 者)
자료 (13)		습염	㉓ 노령(흰 머리)		영혼불멸사상	빋:검은흑단쟁기, 오냥, 떡건, 버선, 원삼, 바지(겉은 비단 또는 명주, 안은 삼 베), (밑부분만 약 간 붉은 속곳, 겹바 지, 단속곳)을 한꺼 번에 박은 바지, 치 마(청색 안감에 푸 른 비단 5폭치마 위 에 다홍치마), 뒤집 은 속적삼, 분홍색 속저고리, 노랑삼 희장저고리, 초록 겉마기, 악수, 비단 족두리(옥판에 산 호, 밀화, 비취, 유 리구슬, 석용황 장 식), 명주에 혼서지 를 접어 만든 신
자료 (14)			㉔, ㉕ : 男 ㉖ : 女	슬픔	재최복 : 모상 오동나무삭장 : 모상	男상복 : 효건, 굴건, 재최복, 수질, 요질, 삼 배행전, 흰무명술 신 총에 감은 짚신, 오동 나무 삭장
		㉔, ㉕ : 男 ㉖ : 女	슬픔	재최복 : 모상 오동나무삭장 : 모상	女상복 : 옷깃이 없 고 소매가 넓은 저고리 대수장군 (좌:3폭, 우 :3폭, 뒤:6폭), 부판	

텍스트자료(번호)	의미분석				의례복식의 종류
	개념적 의미	사회적 의미	심리적 의미	내포적 의미·연상적 의미	
자료 (15)	죽음과 사후의례	상례 상복	상복에 따른 철육의 원, 근	애통합	㉠ 최: 비애를 억누름 ㉡ 부관: 비애를 짊어짐 이기채(양자): 장기 일년 최: 상복의 앞가슴에 달린 배조각(눈물받이) 부관: 상복의 뒤에 붙이는 배조각 父喪-대나무 삭장, 참취 3년(극추 생마포로 아랫단을 꿰매지 않음) 母喪-오동나무 삭장, 재취 3년(차동추생포로 아랫단을 꿰매) 대공복(상복 9개월) 소공복(상복 5개월) 시마(상복 3개월) 장기(삭장 有), 부장기(삭장 無)
자료 (16)		치장			탈, 붉은 옷, 검은 치마 : 사귀를 물리침. 가면, 검은 상의, 붉은 치마, 방패, 창

<표 2> 전통 통과의례와 텍스트에 나타난 통과의례의 비교

	전통 통과의례	텍스트
출생의례	산전(치성기자, 주술기자) 출산(출산시 행하는 주술적 의례) 산후(금줄, 첫이레, 두이레, 세이레, 백일, 돌, 생일의례)	산전(치성기자) 산후(돌의례)
관례	관례(초가, 재가, 삼가) 계례	혼인의례 중 후례에 포함
혼인의례	의혼의례(중매, 궁합, 사주, 택일, 관례) 대례(납폐, 전안례, 초례) 후례(우귀, 견구고례, 재행, 근친)	의혼의례(납채) 대례(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합궁례) 후례(우귀, 폐백, 관례)
죽음과 사후의례	상례(초종, 습염, 성복발인, 치장흉제) 제례(사시제, 예제, 묘제, 차례)	상례(초종, 습염, 성복발인)

IV. 결 론

〈혼불〉에 나타난 통과의례 및 복식을 분석한 결과 출생의례로는 산전의례에 속하는 치성기자와 산후의례인 돌의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가문의 지위나 富를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와 잉태 및 득남을 기원하는 심리적 의미 그리고 음양사상, 무병장수, 자손번창, 침재(針才) 등의 내포적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혼인의례는 의혼의례(납채), 대례(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합궁례), 후례(우귀, 현구고례) 그리고 관례로 나눌 수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로는 지역성, 남성 조혼의 경향, 신분의 고저를 알 수 있었으며, 심리적 의미로는 긴장감, 어색함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포적 의미로는 이성지합, 벽사, 한평생 해로, 정조, 음양오행 사상 등을 알 수 있었다. 혼인의례 복식으로는 안부복으로 갓과 주립 그리고 흑단령이 있으며, 신부의 혼례복으로는 활옷(한삼 포함), 대대, 매화잠, 화관, 큰비녀, 검자주 비단 앞댕기가 外衣로 나타났으며, 內衣로는 下衣로 다리속곳, 속속곳, 단속곳, 고쟁이, 너른바지, 대습치마, 무지기, 다홍치마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內衣중 上衣로는 속저고리, 노랑삼회장 저고리가 나타나고 있다. 신랑의 혼례복으로는 사모와 자색단령이 있었다.

후례인 우귀시 신랑복식은 학생복이었으며, 신부복식은 노랑저고리, 빨거치메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 밖에 폐백시 시어머니의 복식은 연두저고리(자주색 회장), 남색치마였으며, 신부복식은 원삼이었다.

관례는 성인이 되었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관례복식으로는 연두 결마기, 다홍결치마, 열두폭 대무지기, 여덟폭 결풍지기, 여섯폭 연봉무지기, 모시 분홍속직삼, 노랑속저고리, 저고리 삼작이 기본이었으며, 본인보다 윗 어른께는 원삼을, 동향에게는 당의 차림을 했으며, 사당 폐백시는 옥색저고리의 천단복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죽음과 사후의례는 초종, 습염, 성복, 치장으로 나눌 수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로는 초상알림, 연령, 성별, 혈육의 원·근을

알 수 있었으며, 심리적 의미로는 회생소원, 슬픔, 애통함 등이 나타나 있고, 그 밖에 영혼불멸 사상과 상복(재취복, 오동나무 삭장)에 따른 상의 종류(모상)와 최와 부판으로부터 비애를 누름 등의 내포적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밖에 치장단계에서는 사귀를 물리치려는 내포적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의례복식의 종류로는 사자(死者)에게 해당되는 비녀와 흰적삼, 빗, 검은 흑단댕기, 오냥, 떡건, 버선, 원삼, 바지(겉: 비단 또는 명주, 안: 삼베) 밑이 약간 붉은 속곳, 겹바지, 단속곳이 함께 꿰매진 바지, 치마(안감: 청색, 푸른 비단 5폭치마와 다홍치마), 뒤집은 속적삼, 분홍색 속저고리, 노랑삼회장 저고리(초록 결마기), 약수, 비단 족두리(옥판에 산호, 밀화, 비취, 유리구슬, 석용환 장식), 명주에 혼서지를 접어 만든 신 등이 나타나 있다. 생자(生者)에 해당되는 남자 상복으로는 효건, 굴건, 재취복, 수질, 요질, 삼베행전, 흰무명을 신롱에 감은 짚신, 오동나무 삭장을 들 수 있으며, 여자 상복으로는 옷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저고리 대수장군(좌: 3폭, 우: 3폭, 뒤: 6폭)과 부판이 있었다. 이밖에 방상시의 복식으로 가면, 검은 상의, 붉은 치마, 방패, 창이 나타나고 있다.

본 텍스트에서 분석한 통과의례의 의식 및 복식에 나타난 상징에는 득남, 부(富), 부부화합, 장수, 영속사상(永續思想) 등의 주술적인 상징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의미 파악의 양은 독자의 화용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텍스트에서는 통과의례 중에서 혼례와 상례를 가장 길게 다룸으로서 이 두 의례를 가장 중시여겼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고유풍습으로서 본 텍스트의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인 일제하에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기존 세력과 개화하려는 세력이 공존하는 시대였으나 통과의례는 아직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서 소설의 의미분석은 한 문화, 사회, 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오늘날 회미해져 가고 있는 자국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소설을 연극이나 영화예술로 재생산할 때 자료로 사용된다면 그 의

의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로 삼은 〈혼불〉은 의례를 비롯한 한 시대의 삶과 민속의 기록인 동시에 그런 삶과 의례의 체험을 독자에게 전해 주는 유력한 담론으로서 민속의례와 연행문화의 상호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광규, 한국인의 일생, 서울 형설출판사, 1985.
2. 김용덕,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민족문화사, 1991.
3. 김용덕, 일생의례, 한국민속학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1993.
4. 김정자, 한국 결혼풍속사, 서울 민속원, 1981.
5. 김종명, 한국의 혼속연구, 서울 대성문화사, 1981.
6. 김춘동, 한국예속사, 한국문화사대계 4, 고대민속문화연구소, 1970.
7. 박경섭, 한국예속연구, 서울 서광출판사, 1993.
8. 박순희, 조선시대 상복연구, 광주 호남대 논문집 9권, 1988.
9. 박혜인, 한국의 전통혼례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10. 신현숙, 한국어 현상-의미분석, 상명대학교 출판부, 1994.
11. 유지현외, 텍스트로서의 소설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 방법론과 그 적용, 복식문화연구, 4(1), pp. 29-41, 1996.
12. 이경복, 조선시대 산속연구,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79.
13. 이능화, 조선여속고, 서울 동문선, 1992.
14.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1992.
15. 이종향, 우리 민족의 상례와 제사에 관한 연구, 국민대 논문집 9집, 1975.
16. 이봉채, 소설구조론, 새문사, 1984.
17. 장덕순외, 한국의 풍속 上, 문화재관리국, 1970.
18. 장철수, 제례, 한국민속대관 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0.
19. 정승모,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 정에 관한 일연구, 인류학논문집 5, 1979.
20. 최명희, 1993, 혼불(I-IV권)
21. Raymond Firth, 1975, *SYMB. OLS, public and private.*
22. Anorld van Gennep(전경수역), *The Rite of Passage.* 을유문화사, 1992.